

# 경제단체장 “넓은 규제 버리고 기업 살려야” 한목소리

불확실성 확대에 경제 위기 강조  
박용만 “구조 개혁자체가 더더”  
허창수 “새로운 방식으로 새틀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국내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새해에 위기 극복, 사회적 가치 제고, 미래 지속 성장 기반 구축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경제단체장들은 2020년을 맞는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 진단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규제 완화를 통해 침체에 빠진 민간 부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의 투자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강조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구조 개혁 자체가 더더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미래가 심히 우려스럽다”며 “기존 산업 보호 때문에 새로 산업 변화를 일으키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고착됐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정책 수단을 동원해 고용 등 거시경제 숫자 관리는 잘했지만, 정부 기여율(75%)이 높아져 민간 기여율(25%)이 굉장히 줄었다. 그만큼 민간 기업의 체감 경기가 나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인들이 “숫자는 좋은데 왜 내 사업은 나쁘냐”고 반문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외 여건이 나빠 단기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더 큰 문제는 구조 개혁 자체가 더더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미래가 심히 우려스럽다는 것”이라며 “기존 산업 보호 때문에 새로 산업 변화를 일으키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고착됐다. 사업 기회가 없는데 의지만으로 투자가 되느냐”고 반

문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새 틀을 만들어야 할 시기”라며 “넓은 규제,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길을 터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남다른 아이디어로 과감히 도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선제적인 연구와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며 “사회 전반에 기업을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우리경제는 새 시대를 맞아 다시 일어서느냐, 주저앉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 최우선 과제로 인식돼야 한다”며 “정책기조가 ‘기업 활력 제고’로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 법인세율·상속세 인하 ▲ 유연근로제 활성화 입법 ▲ 성과주의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 ▲ 근로조건 결정 개별·유연화 등을 건의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은 “고령화·저성장·저소비가 ‘새로운 일반’(뉴노멀)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세계 무역의 양적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제

우리 수출은 기존 성장모델만으로는 성공 신화를 이어갈 수 없으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물량에서 품질·부가가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눈앞의 기회와 단기성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혁신한다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엄중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위기는 재도약의 새로운 기회”라며 “새해에 중소기업에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면서 ▲ 최저임금 결정기준 차등화 ▲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법) 등 환경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제대로 된 기업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며 “기업인은 상생·협업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기업이 정신을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새해에는 정치가 바로 서야”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020년 경자년(庚子年) 신년사를 통해 “국회는 민생경제와 남북관계, 국제외교에 이르기까지 백척간두에 서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새해 첫날을 시작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1일 “국민의 지력과 힘을 한데 모아 승화시키는 일은 정치의 책무”라면서도 “한국 정치는 제자리 걸음만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며 “풍요롭고 희망 가득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에는 제21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된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아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정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민심의 도도한 물결이 열망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밝혔다.

그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지난해를 언급하며 “국회 역시 임시의정원 개

원 100주년을 기억하며 신뢰 받는 국회를 다짐했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정치 는 실망을 안겼다.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이라고 했다.

이어 “위대한 우리 국민의 지력은 전환기마다 세계인을 놀라게 했다.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민주화·선진화를 이뤄냈다”며 “2017년 광장의 촛불은 지쳐 가던 한국사회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끝으로 “경자년 쥐띠의 해에는 희망과 풍요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며 “새해에는 국민통합의 힘을 모아, 풍요롭고 희망 가득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 “성장 전환점… 제2벤처붐 조성”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올 한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벤처기업인들에게 “우리 벤처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으로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앞세워 한국경제의 혁신성장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돼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건준 회장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 벤처업계는 정부의 ‘제2벤처붐 확산전략’ 발표와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 수출규제의 대두,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둔 노사 간 갈등 고조, 각종 신산업과 기존 전통산업 간의 충돌 등 숱한 난관을 경험했다”고 했다.

안 회장은 이어 “벤처업계의 숙원이었던 벤처기업특별법과 벤처투자촉진법,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지난 2019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안건준 회장은 “하지만,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국내 유니콘 기업은 11개로 증가해 세계 유니콘 기업 순위에서 독일과 같이 5위에 올랐고, 매출 1000억원 이상을 달성한 벤처기업은 587개사로 작년 발표보다 15개사가 증가했으며, 매출 1조원 벤처는 11개사에 달하고, 벤처투자액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성과를 보여줬다”며 “벤처·창업생태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신호

와 성과를 대내외에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안건준 회장은 “전 세계는 지금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선점을 위해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신산업 혁신 창업과 스케일업 강화를 통한 ‘4대 벤처강국’을 구현하겠다는 견인 정책을 발표하고 혁신성장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벤처기업협회도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신산업분야의 선제적 규제개선을 촉구하고, 4차 산업혁명분야 기술혁신과 우수한 인재의 벤처 유입을 촉진하며, 혁신자본의 질적 성장과 선순환 벤처생태계 완성을 위한 정책 제안과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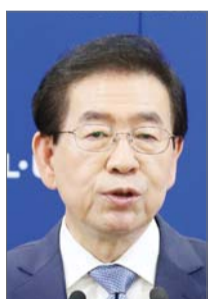
안건준 회장은 “새해에도 지금까지 이뤄 온 성과를 바탕으로 ‘제2벤처 붐’과 ‘선순환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협회도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으로 국내 벤처 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안건준 회장은 지난 2019년 2월 제9대에 이어 제10대 벤처기업협회 제10대 회장을 연임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 부동산 국민공유 선언… “청년에 월세 20만원”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서울부터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원순 시장은 경자년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국민공유제 도입을 제안한다”며 “서울시가 먼저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통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에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 기금은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도 사용된다.

박 시장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며 “이제 땅이 아니라 땅이 준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공시제도 개혁을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지원센터’를 구축,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불평등엔 이자가 붙는다”며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

장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박 시장은 “출발부터 가난하게 자란 소년은 가난한 청년이 되고 가난한 청년이 되고 더 가난한 노년이 된다”며 “일상이 된 소득불균형과 자산격차가 대물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수당 대상자를 10만명으로 확대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4만5000명에게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부부 합산소득 1억원 미만으로 완화해 자가로 집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이들 모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8년간 매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왔다. 2년 후 시는 서울 전체 가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40만호 가량의 공공 임대주택을 보유하게 된다.

박 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쓰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중산층을 포함한 필요한 사람 누구에게나 집이 제공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주거의 안정은 가계안정과 소비확대, 투자와 혁신,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시작이자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시대적 과제로 저출생과 고령화를 꼽으며 국가가 육아와 교육, 돌봄을 책임져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독박육아와 각자도생의 시대에 누가 흔쾌히 아이를 낳으려 하겠냐”며 “82년생 김지영의 불행한 운명이 서울에서만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겠다. 여성이 이제 아이와 가족의 돌봄으로부터 해방돼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고 운명을 개척하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올해 우리동네기움센터를 222개소로 늘리고 난임부부 지원, 아동수당 확대도 추진한다.

박 시장은 “비록 권한과 재정에 많은 한계가 있겠지만, 늘 그래 왔듯이 새로운 도전과 실험으로 전국의 다른 지방정부를 견인하고 중앙정부와 협력체계를 갖춰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